

뉴스 초점      **조선대 이사진 불쌍 사나운 '자리 지키기'**

## 임기만료 5개월 넘도록 차기 구성 미적 되레 2명 증원 정관개정 추진 '꼼수'도

지역여론·교수·학생·동문들 공분

이사진 구성을 촉구하는 학교 구성원과 지역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직 연임만을 위해 편법과 꼼수를 부리는 조선대 이사들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임기가 만료된 지 5개월이 지나 사실상 법적 권한이 없는 조선대 이사들은 자신들의 연임을 위해 수차례나 이사회를 열고도 차기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17일 이사회에서는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연임을 위한 속셈을 드러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사 정원 변경은 정관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현 이사들은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정관 개정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학내 구성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서울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회 정원을 현재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대학정관 변경안이 논의하기로 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9명이지만 1명이 사퇴해 공석 중이며, 나머지 8명은 임기가 3~5개월 이상 지난 상태다. 차기 이사진은 정관에 따라 8명의 이사 중 2명을 제척한 6명과 개방이사 3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거의 매일 회의를 열고 있으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하는 신임 이사 선임 규정상 개방 이사는 물론 차기 이사 선임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8명의 이사 가운데 2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차기 이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이사



18일 울산 문수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한국과 이란의 경기에서 김영권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히고 있다. 한국은 후반 15분 이란의 레자 구차네지드(스탕다르 리에주)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0-1로 패했지만 자력으로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 가슴 쓸어내린 한국축구

월드컵 8회 연속 본선 진출...우즈벱에 골득실 1골 앞서

이란에 0대1 패배

한국이 이란과의 아시아지역 예선 최종전 진출에도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18일 울산 문수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조별리그 이란과의 최종전에서 0-1로 패했다. <관련기사 14면>

한국(승점 14·4승2무2패)은 이날 패배로 이란(승점 16·5승1무2패)에 조 선두자리를 내줬지만 우즈벱키스탄에 골득실차에서 앞서며 조 2위로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냈다.

치너출전에 나섰던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포함하면 통산 아홉 번째 본선 진출, 8회 대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20회), 독일(15회), 이탈리아(13회), 아르헨티나(10회), 스페인(9회) 6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B조 1위로 본선행에 오른 일본에게는 5회 연속 본선 진출, 일본은 지난 4월 호주전 1-1 무승부와 함께 일찌감치 B조 1위로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한편 아시아에 주어진 4장의 본선 티켓은 한국, 일본, 이란, 호주에게 돌아갔다.

세계 축구계에서도 손꼽는 8회 연속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이루기는 했지만 1년 6개월에 거친 '최강희호'의 여정은 아쉬움으로 끝났다.

한국은 안방에서 열린 최종전에서 이렇다할 공격을 펼치지 못하며 이란에 발이 묶였다. 후반 15분에는 레자 구차네지드의 왼발슈팅이 골망을 흔들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실패했다.

한국이 최종예선 마지막 4경기에 기록한 득점은 4점. 우즈벱키스탄전 자책골을 제외하면 경기당 1골도 넣지 못하는 빈약한 골 결정력을 보이며 브라질에서 전개될 진짜 '축구전쟁'을 위한 숙제를 남겼다.

한편 지구촌의 여름을 뜨겁게 달굴 브라질 월드컵은 2014년 6월13일부터 7월14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등 12개 도시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택시 5년간 최대 5만대 줄인다

택시발전법 국무회의 의결...기사에 비용 전가 금지

정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한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을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만든 인이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택시운전자와 업계에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대 쟁점인 감차 방안으로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방자

치단체 예산으로 실거래가에 감차 보상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6000만~7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체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시·도별 5년 단위 택시 총량 조사를 하고 감차 계획을 수립해 내년 7월부터 5년간 사업구역별로 지자체가 감차를 신청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면

허를 반납하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총량 조사를 해서 과잉공급 택시 대수를 파악할 것이라면서 감차 규모는 2만~5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외에도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회정동 180-3(농성역 5번 출구 앞)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MUSEO

이탈리아에 가지않아도...  
서울 강남에 가지않아도...  
광주에서 만나는 고품격 이태리 명품가구!

### 이태리의 정통 명품 수입 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

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 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입니다.

중세 이탈리아에서 볼 수 있던 기품과 현대적인 감성을 조화롭게 가미해 제품의 가치를 한껏 높인 것이 특징이며 유럽 정통 클래식 스타일이면서 한국적 정서와 환경에 잘 어울린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재를 연출하십시오!

뮤제오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나십시오!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생활식

**뮤제오**

광주광역시 서구 회정동 180-3(농성역 5번 출구 앞)  
Tel. 062. 369. 9100 Fax. 062. 369. 9101

신세계백화점  
금호빌딩  
뮤제오 매장  
농성역  
K8 국민은행  
상록회관  
농성동